

경찰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성 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 비교

최은하

본 연구는 경찰관련 학과 전공자 및 그 외 전공자의 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의 비교조사를 통하여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전공은 성인기 초반의 대학생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찰관련 전공자의 성인지 수준은 경찰 조직문화에 있어 직업사회화의 단면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은 향후 경찰조직문화의 의식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간접적 척도인 셈이다. 최근 경찰은 오랜 남성중심의 조직문화 안에서 여성경찰의 채용확대 및 역할을 다각화로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이고,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입직 전부터 성인권의식의 함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대학은 직업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면 이제는 성인권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이다.

주제어: 성인지, 성희롱 통념, 적대적 성별의식, 온정적 성별의식, 경찰학 전공

1. 서론

‘국정과제 83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2-1> 성폭력 성희롱 등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양성평등사회 구현이 박근혜정부의 1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면서, 성별특성과 조건, 요구의 차이가 업무상, 인사상 차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확산하고 있다.

2013년 6월 현재, 여경 숫자는 7800여명으로 전체 경찰관이 10만2000여명에 비하면 8%가 채 되지 않는다. 67년 전인 1946년, 미군정청 경무부 공안국이 여경을 모집해 한국 여경의 역사가 시작했을 때의 80명(간부 16명, 일반 여경 64명)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숫자로만 봤을 때 ‘소수정예’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여경 인력 확충에 대해 “여경 비율을 향후 전체의 10%인 1만여 명까지 늘려 여경의 역할을 확대하고, 여경 근무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이 이런 방침을 세운 건 양성평등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문화의 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경에 대한 성관련 사건이 끊이지

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18000286&md=20131021003524_AT

않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0월 1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을 역임했던 총경급 간부가 재임 당시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경찰관과 경찰직원 753명(여성 729명, 남성 2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 결과보고를 통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²⁾.

이러한 여경의 경찰 직무의 일부 편중된 현상과 남성 조직구성원과의 갈등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경찰구성원의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인권의 부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경찰조직에 편입될 경찰관련 학과 전공자 및 그 외 전공자로서 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의 조사를 통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인지시키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희롱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남성과 여성은 삶의 경험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사회 각 분야의 정책 및 제도에서도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은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별관계는 여성보다 남성에 의해 더 규제되고 통제되어 지배의 관계로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관계들과 함께 그 자체의 존재와는 달리 여러 방식으로 은폐되어 여성은 타자(others)로 남성은 보편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졌다는 것이다(이창순 외, 1997: 101-102). 조직안의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이 남성과 생물학적으로 다르다 것이 존중과 배려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남성문화에서 비주류로 전락하는 경험을 수용케 하도록 합리화하는데 이용되면서 성희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성희롱은 남성문화에 대한 대항이나 도전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성희롱은 전형적으로 조직 안에서 조직전체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양성평등적 정책의 일환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남녀를 불문하고 행위주체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성적언동이나 행동 등으로 혹은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함으로써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판단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정책은 단순히 몇몇 정책 속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에 기반으로 차별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성적 불평등의 요소를 근절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것은 성인지력을 높임으로써 가능해 진다.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이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2) 설문 결과, 141명(19%)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경찰 상급자가 가해자라는 응답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38명), 민원인(10명) 등이 뒤를 이었다(<https://www.womennews.co.kr/news/62052>).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험, 관찰, 개념화에 대한 정기적인 숙고, 그리고 경험적인 증거에 대한 되새김을 통해 발달된다(Miers, 2002; 김원경, 2007: 31 재인용). 즉 성인지력을 높임으로써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도록 하며, 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찰력과 기술을 체화할 때, 의식적으로나마 그동안 고착된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성(gender)에 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해숙, 2003: 21).

2. 선행연구 검토

1)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

대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진로 및 올바른 성정체성과 성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건전한 성의식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Yoo, *et. al.*, 2012; 이영란 외, 2013: 47)

최덕경 외(2004)는 중부지역(경기, 강원, 충청)의 각 1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재학생 982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육생활, 직업생활, 가정생활, 사회문화생활 영역 순으로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사회문화생활에서의 평등의식이 현저히 낮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성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의식, 왜곡된 성문화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며 남성중심적인 환경의 개선 및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성별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수준이 높았고, 형제순위가 첫째이거나 외동이보다는 중간이나 막내일 때 높은 양성평등의식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성장한 대학생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성장한 대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유문숙 외(2012)는 남녀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경기도 소재의 A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았으며 성태도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니 남학생의 성태도가³⁾ 여학생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윤경·최윤진(2011) 양가적 차별주의 이론(Glick & Fiske, 1996: 2001)을 토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이 개발한 ‘다면성별의식검사’를 사용하여 한·일 대학생의 성평등 의식 중 적대적 성별의식과 온정적 성별의식 검사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⁴⁾ 한국과 일본 대학생 613명을 조사한 결

3) 성태도의 하위영역인 쾌락유희성, 결혼관, 성 허용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나윤경·최윤진, 2011: 21).

4)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 따르면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적대적 성별의식: 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온정적 성별의식: Benevolent sexism)의 두 가지 태도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적대적 성별의식)는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여 든다거나 남성에게

과,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에 비해서 온정적 성별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남녀 학생 모두가 실질적 불평등관계와는 다르게 낭만적 성역할에 기반 하여 평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적대적 성별의식과 온정적 성별의식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양국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그 문화나 사회적 규범들 속에 내포된 남성 위주의 체제 정당화 논리들에 순응하여 적대적 성별의식과 온정적 성별의식을 모두 순응하였거나 이와는 반대로 적대적 성별의식뿐만 아니라 온정적 성별의식에 암묵적으로 포함된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간과하여 적대적 성별의식과 온정적 성별의식을 모두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영란 외(2013)는 수도권, 영남지역, 강원·충북지역, 호남지역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24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평등 의식수준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교육생활 영역에서 성평등 의식이 가장 높았고 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 가장 낮은 의식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성희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여성)과 나이였고, 성평등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여성)과 성관계 경험여부였다. 성희롱과 성평등 의식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1) 대학생의 성희롱 실태 및 성희롱 통념

대학생 시기는 초기 성인기로서 자신의 정체감 및 가치관을 정립하여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책임감과 생산성을 발휘해가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다.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때 입시공부로 억제되었던 이성 교제나 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공인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의 가치에 대한 학습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이영애, 2012: 31).

대학생은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서 건전한 성문화를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성희롱 실태조사(정향미, 2002)에 의하면 남녀대학생의 75.1%가 성희롱의 피해 경험이 있으며, 98.8%는 성희롱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집중력 저하, 불안정, 성적저하, 남녀관계 기피 및 자신감 상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등 개인적 차이를 있지만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나타내게 되므로(신정자, 1993; 장필화, 1994; 한국여성민우회,

비합리적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라 할 수 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온정적 성별의식)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부하되는 여성들을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호의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기존의 남성위주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해 우호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 형태로서 전통적 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에 대해 보상을 주고 칭찬함으로써 기존 남성 지배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나윤경·최윤진, 2011: 128).

1998; 김경신·김경란, 1999; 정향미, 2004: 291), 대학생에게 적합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정향미, 2004: 291).

정향미(2004)는 남녀대학생의 성희롱 피해 및 가해경험을 조사하고, 성희롱 경험에 관련된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산시의 5대 대학교에 재학중인 339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그 결과, 남녀대학생의 성희롱 피해경험은 전체 69.3%이었고, 남학생 62.6%, 여학생 77.2%로 여학생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성희롱 가해경험은 전체 72.5%였으며, 남학생 84.3%, 여학생 58.4%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또한 남녀 대학생은 성희롱 피해 및 가해경험이 높으며, 성별, 학부성비, 성희롱 통념 등의 영향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주 외(2005)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제주대학교 재학생 96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폭력에 대한 기존 통념, 성관계에 대한 태도, 성희롱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의 통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지만 대체로 성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은 사회적인 기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식수준이 낮고 남성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서는 남학생이 피해자의 유발이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더 많았다. 또한 성희롱 경험의 경우 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 유형의 순으로 응답률이 많았으며 주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에 대한 대처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 가장 높았고, 성희롱 문제를 상의하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가장 많았다.

이영애(2012)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소도시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총 5,07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나, 정작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7:3의 비율로 여학생의 피해가 많고, 언어적 성희롱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았다. 성희롱 유형에 따라 가해자군이 달리 나타났는데, 언어적 성희롱은 선배가, 시각적 성희롱은 동료·후배가, 육체적 성희롱은 선배/동료·후배가 가해는 빈도가 높았다.

성희롱 통념이란 가해자의 원치 않는 관심과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언행을 해석하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도록 하는 편파 되고 고정관념화 되거나 잘못된 신념으로 가해자의 성희롱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신념 등을 의미한다(김정인 외, 2006: 380).

일반인들이 성희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류된 통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정인 외, 2006: 380-381). 우선, 성희롱 발생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통념이다. 사람들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흠을 찾아서 일반적으로 “다할만하다, 그러고 다니니 당하지”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가해자의 일방적 행위일지라도 잠재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으로, 피해자를 격하시키고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이 같은 왜곡된 인지적 요인들은 가해자의 명백한 잘못에도 불

구하고 성희롱의 원인을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시키며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통념의 만연은 피해자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처를 방해한다(Jenson & Gutek, 1982). 성희롱의 책임을 피해자에게서 찾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성희롱을 남성의 입장에서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 통념은 결국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고, 남성에게는 성희롱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행위에 대한 오해 및 과잉반응과 관련된 통념으로 “희롱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놀렸을 뿐이야”, “성희롱은 별 것 아닌데 여자들이 과잉 반응한 것이다” 등과 같은 것들이 해당한다. 이러한 통념은 성희롱의 발생이 피해자가 별 것 아닌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통념은 성희롱 행동을 가볍게 여기며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신체적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축소·왜곡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인 외(2006)은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에 대한 남녀 간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들과 성희롱 경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변인들에 대한 남녀 간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학생들은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오해와 과잉반응으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성희롱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희롱 행동을 친근감의 표현, 직장생활의 활력소 정도의 가벼운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고, 성희롱 피해자의 반응에 양심을 품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한 과잉반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문숙 외(2012)는 남녀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희롱 통념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과잉반응, 행위 오해, 피해자 책임, 피해과소평가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희롱 통념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희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희롱 통념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성희롱이 유발된 원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있으며 피해자들이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하거나 사소한 문제를 확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결과들(김정인 외, 2001; 김정인 외, 2006; Rotundo, *et. al.*, 2001)과 일치한다.

III. 연구의 설계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분석은 통계 패키지인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을 이

용하여 전산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5%($\alpha=.0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설문 표본은 노량진 수험학원의 지원을 받아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6부를 제외한 28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중 법 및 경찰관련 전공과 기타 전공의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χ^2)검증을 통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전공 및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t-test 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s r을 통해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과 성별의식이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변인 신뢰도

<표 1> 연구변인 신뢰도

항목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성별 의식	적대적 성별의식	지배적 남성주의	I-5, 4, 19, 24	4	.768
		경쟁적 성분화	I-6, 3, 14, 20,	4	.742
		적대적 이성애	I-7, 1, 15, 21	4	.752
		전 체	I-1, 3, 4, 5, 6, 7, 14, 15, 19, 20, 21, 24	12	.907
	온정적 성별의식	보호적 남성주의	I-8, 2, 16, 22	4	.680
		보완적 성분화	I-9, 11, 17, 23	4	.664
친밀한 이성애		I-10, 12, 18, 13	4	.800	
	전 체	I-2, 8, 9, 10, 13, 16, 17, 18, 22, 23	12	.828	
성희 롱통 념	행위 오해	II-1, 2, 3, 4, 5, 6, 7, 8	8	.850	
	피해자 책임	II-9, 10, 11, 12, 13, 14	6	.889	
	과잉 반응	II-15, 16, 17, 18, 19, 20, 21	7	.878	
	전 체	II-1 ~ 21	21	.942	

위의 표는 연구변인들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구한 내용이다. 성별의식을 살펴 보면 '적대적 성별의식'이 .907을 보였으며 하위변인 .742~.768을 보였다. '온정적 성별의식'의 경우 .828을 보였으며 하위변인은 .664~.800을 보여 전체적으로 성별의식의 신뢰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성희롱 통념의 경우 전체 .942였으며 하위변인 .850~.889의 수준을 보여 역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IV. 연구의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공		전체	χ ²
		경찰관련 전공	기타 전공		
성별	남성	81(57.0%)	65(46.8%)	146(52.0%)	2.974
	여성	61(43.0%)	74(53.2%)	135(48.0%)	
학력	2년제 대학	91(64.1%)	99(71.2%)	190(67.6%)	1.635
	4년제 대학	51(35.9%)	40(28.8%)	91(32.4%)	
전체		142(100.0%)	139(100.0%)	281(10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찰관련 전공자는 총 281명 중 50.5%(142명)이었으며, 기타 전공자는 49.5%(139명)로 조사되었다. 전공별로 성별, 학력을 카이제곱(χ²)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전체적으로 남성 52.0%, 여성 48.0%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의 경우 2년제 대학은 67.6%, 4년제 대학은 32.4%로 조사되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 차이

<표 3> 전공에 따른 연구변인 차이

구분			전공		전체	t
			경찰관련 전공	기타 전공		
성 별 의 식	적대적 성별의식	지배적 남성주의	2.34±0.79	2.05±0.56	2.20±0.70	3.546***
		경쟁적 성문화	2.31±0.74	2.08±0.53	2.20±0.65	2.958**
		적대적 이성애	2.40±0.73	2.15±0.60	2.28±0.68	3.250**
		전 체	2.35±0.71	2.09±0.51	2.22±0.63	3.528***
성 별 의 식	온정적 성별의식	보호적 남성주의	2.39±0.61	2.21±0.61	2.30±0.62	2.444*
		보완적 성문화	3.01±0.55	2.60±0.57	2.81±0.60	6.147***
		친밀한 이성애	2.73±0.74	2.37±0.64	2.55±0.71	4.358***
		전 체	2.71±0.48	2.39±0.50	2.55±0.51	5.434***
성 회 동 태 에 대 한	행위오해 피해자책임 과잉반응	행위오해	2.30±0.59	2.11±0.63	2.21±0.61	2.654**
		피해자책임	2.12±0.74	1.96±0.73	2.04±0.74	1.832
		과잉반응	1.98±0.66	2.07±0.66	2.03±0.66	-1.063
		전 체	2.13±0.60	2.04±0.62	2.09±0.61	1.232

※ *p<.05 **p<.01 ***p<.001

위의 표는 전공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한 내용이다.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적대적 성별의식’ 전체(t=3.528, p<.001)와 그 하위변인 ‘지배적 부성주의’(t=3.546, p<.001), ‘경쟁적 성분화’(t=2.958, p<.01), ‘적대적 이성애’(t=3.250, p<.01), ‘온정적 성별의식’ 전체(t=5.434, p<.001)와 하위변인 ‘보호적 부성주의’(t=2.444, p<.05), ‘보완적 성분화’(t=6.147, p<.001), ‘친밀한 이성애’(t=4.358, p<.001), 성희롱 통념의 ‘행위 오해’(t=2.65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항목 모두 경찰관련 전공자들의 평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 차이

구 분			성 별		t	
			남 성	여 성		
성 별 의 식	적대적 성별의식	지배적 부성주의	2.51±0.67	1.86±0.54	9.049***	
		경쟁적 성분화	2.49±0.65	1.88±0.49	9.003***	
		적대적 이성애	2.58±0.64	1.94±0.56	8.890***	
		전 체	2.53±0.60	1.89±0.47	9.961***	
	온정적 성별의식	보호적 부성주의	2.49±0.60	2.10±0.57	5.558***	
		보완적 성분화	2.86±0.60	2.75±0.60	1.590	
		친밀한 이성애	2.69±0.70	2.40±0.71	3.422***	
		전 체	2.68±0.47	2.42±0.52	4.438***	
		성 희 롱 통 념	행위오해	2.42±0.58	1.98±0.57	6.382***
			피해자책임	2.39±0.68	1.66±0.59	9.506***
과잉반응	2.23±0.67		1.80±0.58	5.769***		
전 체	2.35±0.58		1.81±0.52	8.111***		

※ ***p<.001

위의 표는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한 내용이다.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적대적 성별의식’ 전체(t=9.961, p<.001)와 그 하위변인 ‘지배적 부성주의’(t=9.049, p<.001), ‘경쟁적 성분화’(t=9.003, p<.001), ‘적대적 이성애’(t=8.890, p<.001), ‘온정적 성별의식’ 전체(t=4.438, p<.001)와 하위변인 ‘보호적 부성주의’(t=5.558, p<.001), ‘친밀한 이성애’(t=3.422, p<.001), 성희롱 통념의 전체(t=8.111, p<.001)와 하위변인 ‘행위 오해’(t=6.382, p<.001), ‘피해자 책임’(t=9.506, p<.001), ‘과잉반응’(t=5.76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항목 모두 남성들의 평점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력에 따른 연구변인 차이

구분			학력		t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성 별 의 식	적대적 성별의식	지배적 남성주의	2.34±0.70	1.91±0.58	5.407***
		경쟁적 성분화	2.33±0.68	1.93±0.52	5.377***
		적대적 이성애	2.36±0.72	2.11±0.57	3.164**
		전 체	2.34±0.65	1.98±0.50	5.087***
	온정적 성별의식	보호적 남성주의	2.31±0.62	2.29±0.61	0.178
		보완적 성분화	2.78±0.64	2.87±0.50	-1.368
		친밀한 이성애	2.61±0.70	2.42±0.73	2.176*
전 체	2.57±0.52	2.53±0.50	0.585		
성 희 롱 통 념 의 의 의 의 의	행위오해	2.29±0.61	2.04±0.59	3.175**	
	피해자책임	2.17±0.73	1.75±0.68	4.691***	
	과잉반응	2.13±0.67	1.81±0.60	3.778***	
	전 체	2.20±0.60	1.87±0.58	4.335***	

※ *p<.05 **p<.01 ***p<.001

위의 표는 학력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한 내용이다.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적대적 성별의식’ 전체(t=5.087, p<.001)와 그 하위변인 ‘지배적 남성주의’(t=5.407, p<.001), ‘경쟁적 성분화’(t=5.377, p<.001), ‘적대적 이성애’(t=3.164, p<.01), ‘온정적 성별의식’의 하위변인 ‘친밀한 이성애’(t=2.176, p<.05), 성희롱 통념의 전체(t=4.335, p<.001)와 하위변인 ‘행위오해’(t=3.175, p<.01), ‘피해자 책임’(t=4.691, p<.001), ‘과잉반응’(t=3.77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항목 모두 2년제 대학생들의 평점이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공에 따른 성별 연구변인 차이

<표 6> 전공에 따른 남성 연구변인 차이

구분			전공		t
			경찰관련 전공	기타 전공	
성 별 의 의 의 의 의	적대적 성별의식	지배적 남성주의	2.78±0.67	2.18±0.51	5.863***
		경쟁적 성분화	2.71±0.66	2.23±0.53	4.775***
		적대적 이성애	2.78±0.65	2.34±0.55	4.308***
		전 체	2.75±0.60	2.25±0.47	5.540***

<표 6> 전공에 따른 남성 연구변인 차이(계속)

구 분			전 공		t
			경찰관련 전공	기타 전공	
성 별 의 식	온정적 성별의식	보호적 남성주의	2.50±0.62	2.47±0.58	0.335
		보완적 성분화	3.05±0.55	2.63±0.57	4.579***
		친밀한 이성애	2.82±0.70	2.52±0.66	2.682**
		전 체	2.79±0.42	2.54±0.49	3.377***
성 희 롱 통 념	행위오해 피해자책임 과잉반응	행위오해	2.54±0.50	2.26±0.64	2.953**
		피해자책임	2.48±0.64	2.27±0.73	1.919
		과잉반응	2.25±0.65	2.21±0.69	0.318
	전 체	2.43±0.52	2.25±0.63	1.841	

※ **p<.01 ***p<.001

위의 표는 남성들 중 전공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한 내용이다.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적대적 성별의식’ 전체(t=5.540, p<.001)와 그 하위변인 ‘지배적 남성주의’(t=5.863, p<.001), ‘경쟁적 성분화’(t=4.775, p<.001), ‘적대적 이성애’(t=4.308, p<.001), ‘온정적 성별의식’ 전체(t=3.377, p<.001)와 하위변인 ‘보완적 성분화’(t=4.579, p<.001), ‘친밀한 이성애’(t=2.682, p<.01), 성희롱 통념의 하위변인 ‘행위 오해’(t=2.95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항목 모두 경찰관련 전공학생들의 평점이 기타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전공에 따른 여성 연구변인 차이

구 분			전 공		t
			경찰관련 전공	기타 전공	
성 별 의 식	적대적 성별의식	지배적 남성주의	1.76±0.49	1.94±0.57	-1.941
		경쟁적 성분화	1.78±0.46	1.96±0.51	-2.056*
		적대적 이성애	1.91±0.52	1.97±0.59	-0.656
		전 체	1.82±0.42	1.95±0.50	-1.705
	온정적 성별의식	보호적 남성주의	2.24±0.56	1.98±0.55	2.648**
		보완적 성분화	2.96±0.55	2.58±0.58	3.894***
		친밀한 이성애	2.60±0.78	2.24±0.60	3.015**
전 체	2.60±0.54	2.27±0.47	3.866***		
성 희 롱 통 념	행위오해 피해자책임 과잉반응	행위오해	1.98±0.53	1.98±0.59	0.019
		피해자책임	1.63±0.56	1.68±0.62	-0.526
		과잉반응	1.63±0.50	1.94±0.61	-3.238**
	전 체	1.75±0.48	1.87±0.55	-1.357	

※ *p<.05 **p<.01 ***p<.001

위의 표는 여성들 중 전공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한 내용이다.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적대적 성별의식’의 하위변인 ‘경쟁적 성분화’(t=-2.056, p<.05), ‘온정적

성별의식' 전체($t=3.866, p<.001$)와 하위변인 '보호적 부성주의'($t=2.648, p<.01$), '보완적 성분화'($t=3.894, p<.001$), '친밀한 이성애'($t=3.015, p<.001$), 성희롱 통념의 하위변인 '과잉반응'($t=-3.238,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항목 중 '온정적 성별의식'과 하위변인의 경우는 경찰관련 전공학생들의 평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적 성분화'와 '과잉반응'의 경우 기타 전공학생들의 평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전공에 따른 2년제 대학 연구변인 차이

구 분			전 공		t
			경찰관련 전공	기타 전공	
성 별 의 식	적대적 성별의식	지배적 부성주의	2.59±0.79	2.11±0.53	4.860***
		경쟁적 성분화	2.54±0.74	2.12±0.54	4.440***
		적대적 이성애	2.59±0.75	2.14±0.61	4.478***
		전 체	2.57±0.71	2.13±0.51	4.972***
	온정적 성별의식	보호적 부성주의	2.47±0.60	2.16±0.61	3.526***
		보완적 성분화	3.09±0.57	2.49±0.55	7.457***
		친밀한 이성애	2.93±0.67	2.33±0.61	6.530***
		전 체	2.83±0.43	2.32±0.48	7.671***
성 희 롱 통 념	행위오해	피해자책임	2.44±0.53	2.15±0.64	3.426***
		과잉반응	2.36±0.70	2.00±0.71	3.562***
		전 체	2.11±0.69	2.14±0.65	-0.386
	전 체	2.30±0.57	2.10±0.61	2.408*	

※ * $p<.05$ *** $p<.001$

위의 표는 2년제 대학생들 중 전공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한 내용이다.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적대적 성별의식' 전체($t=4.972, p<.001$)와 그 하위변인 '지배적 부성주의'($t=4.860, p<.001$), '경쟁적 성분화'($t=4.440, p<.001$), '적대적 이성애'($t=4.478, p<.001$), '온정적 성별의식' 전체($t=7.671, p<.001$)와 하위변인 '보호적 부성주의'($t=3.526, p<.001$), '보완적 성분화'($t=7.457, p<.001$), '친밀한 이성애'($t=6.530, p<.001$), 성희롱 통념의 전체($t=2.408, p<.01$)와 하위변인 '행위 오해'($t=3.426, p<.001$), '피해자 책임'($t=3.56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항목 모두 경찰관련 전공학생들의 평점이 기타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전공에 따른 4년제 대학 연구변인 차이

구 분			전 공		t
			경찰관련 전공	기타 전공	
성 별 의 식	적대적 성별의식	지배적 남성주의	1.90±0.57	1.91±0.61	-0.085
		경쟁적 성분화	1.89±0.52	1.98±0.52	-0.811
		적대적 이성애	2.07±0.57	2.15±0.58	-0.631
		전 체	1.96±0.51	2.01±0.49	-0.555
	온정적 성별의식	보호적 남성주의	2.25±0.61	2.34±0.60	-0.728
		보완적 성분화	2.87±0.48	2.88±0.54	-0.127
		친밀한 이성애	2.37±0.74	2.48±0.71	-0.666
		전 체	2.50±0.50	2.57±0.49	-0.665
성 희 롱 에 대 해 의 통 념	행위오해		2.06±0.60	2.02±0.58	0.295
	피해자책임		1.67±0.59	1.85±0.77	-1.206
	과잉반응		1.76±0.56	1.88±0.64	-0.899
	전 체		1.83±0.55	1.92±0.61	-0.680

위의 표는 4년제 대학생들 중 전공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한 내용이다. 검증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관련 전공자들의 성별의식 평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2년제 대학의 전공별 차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2년제 대학 안에서도 남성들의 전공에 따른 차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표 10>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구 분		적대적 성별의식				온정적 성별의식			
		a	b	c	d	e	f	g	h
적 대 적 성 별 의 식	a.지배적 남성주의	1							
	b.경쟁적 성분화	.816**	1						
	c.적대적 이성애	.775**	.770**	1					
	d.전 체	.934**	.928**	.916**	1				
온 정 적 성 별 의 식	e.보호적 남성주의	.295**	.242**	.319**	.309**	1			
	f.보완적 성분화	.268**	.240**	.285**	.286**	.338**	1		
	g.친밀한 이성애	.263**	.245**	.221**	.262**	.461**	.541**	1	
	h.전 체	.344**	.304**	.341**	.357**	.747**	.775**	.860**	1
성희롱 통념		.675**	.671**	.676**	.728**	.317**	.265**	.281**	.360**

※ *p<.05 **p<.01

위의 표는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적대적 성별 의식의 경우 온정적 성별의식과 $r=.357(p<.01)$ 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성희롱 통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적대적 성별의식의 경우 $r=.728(p<.01)$ 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변인들도 $r=.671\sim 676(p<.01)$ 의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온정적 성별의식의 경우 성희롱 통념과 $r=.360(p<.01)$ 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변인들은 $r=.265\sim 317(p<.01)$ 로 역시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4. 일반특성 및 성별의식이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상위변인)

<표 11> 일반특성 및 성별의식이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상위변인)

항 목	B	(S.E)	Std. B	t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Constant)	.308	(.257)		1.196		
성별	-.094	(.057)	-.077	-1.651	.734	1.363
학력	-.074	(.055)	-.057	-1.359	.909	1.101
전공	.130	(.052)	.107	2.501*	.879	1.138
적대적 성별의식	.627	(.049)	.645	12.801***	.630	1.588
온정적 성별의식	.168	(.053)	.142	3.179**	.806	1.240
Dependent Variable: 성희롱 통념						
R	R2		Adj. R2		F	
0.749	0.560		0.553		70.142***	

※ * $p<.05$ ** $p<.01$ *** $p<.001$

위의 표는 일반특성 및 성별의식이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내용이다. 분석결과 F값 70.142($p<.001$)로 나타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모형은 수정 결정계수(Adj. R2)의 값이 0.553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성희롱 통념변화의 55.3%를 설명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투입된 독립변인 중 성별($\beta=-.077, p>.05$)과 학력($\beta=-.057, p>.05$)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으며, 전공($\beta=.107, p<.05$)의 경우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별의식($\beta=.645, p<.001$)과 온정적 성별의식($\beta=.142, p<.01$) 모두 성희롱 통념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적대적 성별의식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다. 공차한계 0.1 이상, 분산팽창요인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일반특성 및 성별의식이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하위변인)

<표 12> 일반특성 및 성별의식이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하위변인)

항 목		B	S.E	Std. B	t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Constant)		.318	(.260)		1.222		
성별		-.095	(.059)	-.078	-1.626	.698	1.432
학력		-.085	(.057)	-.065	-1.482	.833	1.201
전공		.130	(.053)	.106	2.437*	.851	1.175
적대적 성별의식	지배적 남성주의	.180	(.068)	.205	2.634**	.266	3.761
	경쟁적 성분화	.194	(.071)	.208	2.712**	.276	3.626
	적대적 이성애	.251	(.064)	.280	3.938***	.320	3.122
온정적 성별의식	보호적 남성주의	.059	(.048)	.059	1.231	.698	1.432
	보완적 성분화	.067	(.053)	.065	1.259	.604	1.657
	친밀한 이성애	.046	(.045)	.054	1.026	.580	1.723
Dependent Variable: 성희롱 통념							
R		R2		Adj. R2		F	
0.749		0.561		0.547		38.551***	

※ *p<.05 **p<.01 ***p<.001

위의 표는 일반특성 및 성별의식의 하위변인이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내용이다. 분석결과 F값 38.551(p<.001)로 나타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모형은 수정 결정계수(Adj. R2)의 값이 0.547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성희롱 통념변화의 54.7%를 설명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투입된 독립변인 중 성별($\beta = -.078, p > .05$)과 학력($\beta = -.065, p > .05$)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으며, 전공($\beta = .106, p < .05$)의 경우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별의식의 하위변인이 지배적 남성주의($\beta = .205, p < .01$), 경쟁적 성분화($\beta = .208, p < .01$), 적대적 이성애($\beta = .280, p < .001$)은 성희롱 통념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온정적 성별의식의 경우 하위변인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공차한계 0.1 이상, 분산팽창요인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찰관련 학과 전공자 및 그 외 전공자의 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의 비교조사를 통하여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자료로 삼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변인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경찰관련 전공자들의 성별의식 평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학력 별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2년제 대학의 전공별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성들의 전공에 따른 차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대적 성별의식의 경우 온정적 성별의식과 $r=.357(p<.01)$ 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성희롱 통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적대적 성별의식의 경우 $r=.728(p<.01)$ 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변인들도 $r=.671\sim.676(p<.01)$ 의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온정적 성별의식의 경우 성희롱 통념과 $r=.360(p<.01)$ 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변인들은 $r=.265\sim.317(p<.01)$ 로 역시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일반특성 및 성별의식이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변인은 F값 70.142($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모형은 수정 결정계수(Adj. R2)의 값이 0.553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성희롱 통념변화의 55.3%를 설명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투입된 독립변인 중 전공($\beta=.107, p<.05$)의 경우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별의식($\beta=.645, p<.001$)과 온정적 성별의식($\beta=.142, p<.01$) 모두 성희롱 통념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적대적 성별의식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변인은 F값 38.551($p<.001$)로 나타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모형은 수정 결정계수(Adj. R2)의 값이 0.547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성희롱 통념변화의 54.7%를 설명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투입된 독립변인 중 전공($\beta=.106, p<.05$)의 경우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별의식의 하위변인이 지배적 부정주의($\beta=.205, p<.01$), 경쟁적 성분화($\beta=.208, p<.01$), 적대적 이성애($\beta=.280, p<.001$)은 성희롱 통념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온정적 성별의식의 경우 하위변인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전공은 성인기 초반의 대학생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찰관련 전공자의 성인지 수준은 경찰 조직문화에 있어 직업사회화의 단면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은 향후 경찰조직문화의 의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 척도인 셈이다.

최근 경찰은 오랜 남성중심의 조직문화 안에서 여성경찰의 채용확대 및 역할을 다각화로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이고,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입직 전부터 성인권의식의 함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대학은 직업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면 이제는 성인권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이다.

참고문헌

- 박금주, 김두화, 김성현. 2005.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26: 307-342.
 유문숙, 박지원, 유미애. 2012. 남녀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1): 14-22.

- 이영란, 김경미, 최소은. 2013.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및 영향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40-50.
- 이영애. 201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 중·소도시 대학생들에 대한 시계열연구. *피해자학연구*. 20(2): 31-54.
- 정향미. 2004. 남녀 대학생의 성희롱 피해, 가해 경험과 영향요인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10(3): 291-299.
- 최덕경, 최동숙, 김기정, 유을용, 변미화. 2004. 중부지역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청소년복지연구*. 6(1): 117-134.
- Glick, Peter & Susan Fiske.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lick, Peter & Susan Fiske.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崔殷下: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예방 교육담당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요 연구주제는 범죄 및 형사정책 전반이다(channa21@daum.net).

투 고 일: 2013년 11월 01일

수 정 일: 2013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0일

A Comparison of Police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onventional Wisdom toward Sexual Harrassment and Those of Other Major Graduates'

Eun Ha Choi

A comparison of police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onventional wisdom toward sexual harrassment and those of other major graduates'. This study aims to enhance sex awareness through a comparison research on police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onventional wisdom toward sexual harrassment and those of other major graduates'. The matter of what to major in a university or a college affects a great deal on any undergraduate' career path in the early stage of his or her adulthood and furthermore the level of a police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s sex awareness can be understood as an aspect of occupational socialization in police organization culture. Accordingly, It is natural to say that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onventional wisdom toward sexual harrassment are indirect scales that can be used in measuring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police organization in the future. Presently, sex awareness sensibility has been demanded more highly than ever to the police due to female officers' expended hiring and role diversification in the long time existing male oriented organization culture, therefore awareness of sex human right must be cultivated to keep pace with this trend. Thus while most universities and colleges have endeavored to job professionalization and characterization, now is the high time to pay attention to sex human right education.

Key words: gender sensitive, hostile sexism, benevolent sexism, sexual harassment myth, police administration major